

세계적 수준의 시멘트 · 콘크리트 개발 및 국산화

〈대기업 부문〉

쌍용양회공업(주) 이종열 소장

고육과학기술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는 세계적 수준의 시멘트 · 콘크리트 개발 및 국산화에 기여한 쌍용양회공업(주) 이종열 소장과 나노전극소재 기반의 고성능 리튬폴리머전지 개발에 성공한 (주)코캠 고성태 연구소장을 '이달의 엔지니어상'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.

대기업 부문 수상자인 쌍용양회공업(주) 이종열 소장은 30년 간 특수시멘트 · 콘크리트 개발에 전념해온 엔지니어로서 최근 초고강도 콘크리트용 시멘트 등 6종의 특수 시멘트 · 콘크리트 신제품 개발과 순환자원 활용기술을 개발한 공로를 인정받았다.



이종열 소장은 국내 건설현장에서 외국 제품에 의존하던 자수평재 등 21종의 특수 시멘트 · 콘크리트제품을 국산화해 국내 건설재료 발전에 크게 공헌하였음은 물론 이와 관련하여 연간 약 300억 원의 매출증대에도 기여하였다.

또한, 이 소장은 국내외에 총 210여 편의 논문발표와 산업재산권 17건을 출원하는 등 축적된 기술력을 인정받아 1996년 IR52 장영실상, 2004년 대통령 표창을 받기도 하였다. 현재, 이 소장은 국내에서 연간 1억 톤 이상 발생되고 있는 폐기물의 무해 · 안전처리를 위한 연구개발 활동에 노력하고 있다.

1962년 설립된 쌍용양회공업(주)는 국내 최대의 시멘트 · 레미콘 제조업체로 업계 최초로 1975년 연구소를 설립해 관련 신제품 및 신기술개발을 통하여 업계 발전을 선도해 왔으며, 향후 세계적인 시멘트 · 레미콘 전문기업으로의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.

나노전극소재 기반의 고성능 리튬폴리머전지 개발 성공

〈중소기업 부문〉

(주)코캠 고성태 연구소장

중소기업 부문 수상자인 (주)코캠 고성태 연구소장은 11년 간 리튬이차전지 개발에 전념해온 전문엔지니어로서 나노 전극소재를 이용한 고출력, 장수명의 특성을 갖는 리튬폴리머전지를 개발한 공로를 인정받았다.



고성태 소장은 2006년 말 나노소재를 전극재료로 활용하여 기존 리튬이온전지의 기술적인 한계성을 뛰어넘어 5분 만에 90% 이상의 급속충전이 가능하고 5천회 이상의 재충전이 가능한 리튬폴리머전지 개발에 성공하였으며, 그 기술적인 우수성을 바탕으로 2007년 한해 약 70억 원의 수출증대와 더불어 미국 전지자동차 시장에서 (주)코캠의 기술력을 확고히 하게 했다.

또한, 고 소장은 나노소재의 국산화와 에너지밀도가 더욱 향상된 리튬폴리머전지 개발로 중대형 리튬이차전지 시장의 기술적 우위 확보는 물론, 수입대체 및 수출을 통한 우리나라 부품소재산업의 국제적인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.

2000년에 본격적인 리튬폴리머전지 개발을 시작한 (주)코캠은 초기 휴대폰용 리튬폴리머전지를 시작으로 현재는 중 · 대용량 리튬이차전지 개발에 주력하여 세계 최초 리튬폴리머전지를 이용한 RC용 전지시장을 개척했다. 국내 통신업계와 공동으로 광중계기용 무정전전원장치(UPS)의 개발 및 납품을 진행하고 있으며, 군수용, 전기 자동차용 등의 응용제품군의 국산화를 통해 국가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. ㉔

글 | 편집실